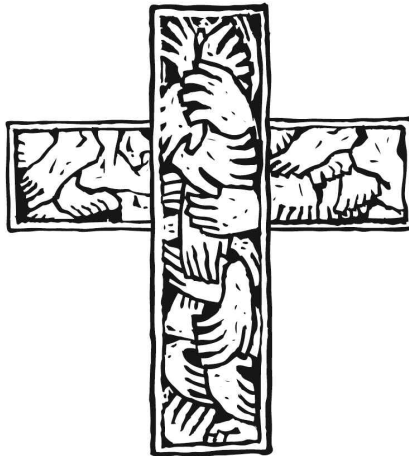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림절 제4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신진식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32. 만유의 주재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창조의 하나님,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어느새 대림절 네 개의 초를 모두 밝혔습니다. 기다림의 빛으로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돈한 세상에서 명확하게 사고하고, 용기 있게 말하고, 단호하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누군가의 안락한 삶을 위해 누군가의 삶을 위협에 내모는 이 땅의 문화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시대의 히브리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눅1:78b-79 인도자

▲ 교 독 문 118. 구주 강림(4) 다 함께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2부대표기도 박범희 장로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366.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다 함께

▲ 성경봉독 히10:5-10 I. 인도자
 II. 김성우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독자

다 함께

찬 양 I. 찾아오신 예수 마중물 찬양대
 II. 구주가 오신다 청파 찬양대

말씀 기다림이란 삶으로 ‘아멘’ 하는 것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285.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삶이 곧 예배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을 주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다함께: 아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그 삶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세례입교식 및 성탄 축하행사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가끔 별을 봅시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를 알려 줍니다. 곧 그들이 잠시나마 별을 보는 것을 놓친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별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헤로데 임금의 궁전 안에는 분명 그 별빛이 없었습니다. 이 잠시 동안의 멈춤은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슬픔과 차별, 공포, 질투가 밀려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에서 헤로데 임금은 의심 많고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연약한 한 아기의 탄생을 두고 그는 마치 라이벌처럼 여기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불쌍하게도 로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그를 전복시키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참된 주권자로서 오신 것이지요.

그러나 헤로데 임금과 그의 조언자들은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기반을 뒤집고, 자신들의 가면을 벗겨낼 이가 출현한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실상 권력과 성공, 부와 부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세상은, 이 아기로 인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데 임금은 아기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교부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그대의 마음을 죽이고 있기에 그대는 육적으로 아기들을 죽이는구려!”

이와 같이 두려움을 지니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어리석음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헤로데 임금 곁에 가득한 어둠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세주께서 베들레헴에서 나리라’라는 예언자의 말, 곧 성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고 그 별을 보게 된 것이지요. 복음은 이때 그들이 “더없이 기뻐하였다.”(마태2:10)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별은 궁전 안에 가득 찬 세속의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별에는 ‘거룩한 지혜’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이 ‘거룩한 지혜’는 우리가 위험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해 주는 미묘한 영적 활동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지혜

의 빛을 사용할 줄 알았던 거지요. 즉, 그들은 돌아가면서 헤로데 임금에 있는 어둠의 궁전을 들리지 않기 위해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동방박사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둠 속에 빠지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덮으려는 암흑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들은 이 거룩한 지혜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역시 그렇게 신앙을 지켜 내야만 합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둠은 빛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가 말하듯이, 악마는 종종 빛의 천사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지혜’ 필요합니다.

“이것 봐! 오늘 이것 한 번 해 보자.”라고 말하는 사이렌의 유혹으로부터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은총이자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지혜’와 기도, 사랑과 애덕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단순함과 현명함을 아우를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개발해야만 하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마태 10:15)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보다 나은 선과 아름다움에 시선을 뒤야 하는 거지요. 동방박사들은 우리에게 걸모습에 속지 말라고 알려 줍니다. 세상이 말해 주는 크기나 앞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오는 걸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넘어야만 합니다. 어둠을 넘고 사이렌의 유혹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세속성과 근대라는 이름의 물질과학 중심을 넘어 엄마와 아빠 사이에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저기 저 소박한 집이 있는 곳,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태양이 높이 솟아오른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방박사들의 길을 따라, 우리의 작은 빛으로 빛 그 자체를 찾읍시다. 신앙을 지켜 냅시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 프란체스코 교황, 「뒤틀림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가톨릭출판사) 중에서

세례입교식 및 성탄 축하행사

• 1부 세례입교식

1. 유아세례
2. 성인세례
3. 입교식

• 2부 축하행사

1. 세례 받은 이들을 위한 축복송 - 산다는 것은 축복 - 아동부
2. 찬양과 율동 - 난 기다려요 - 유아부
3. 찬양과 율동 - 크리스마스 선물 - 유치부
4. 찬양과 연주 - My Christmas Tree - 유스오케스트라, 아동부, 중고등부
5. 찬양과 댄스 - 크리스마스 캐롤 - 중고등부
6. 찬양 - 예수 나셨네 - 청년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고희은 구재원 김경혜 김남종 오복순 김도윤 김명하 오형일
 김명희b 김수경 김애순 김영미 김영읍 김용진 박효선 김종락 박영신
 김준호 곽혜자 김중현 성귀옥 김철수 유영남 김현주 김혜라 박병구 박영희
 박준희 이기분 박지혜 서정순 송병찬 신영옥 심해성 안미순 안현숙 오진훈
 노순옥 유금주 유지은 윤성종 김윤정 윤정득 은종인 이부곤 이순용 김신실
 이용석 이응석 이은경 이주경 안상숙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이증자 이치림
 강상연 이호원 장기환 장원호 박성희 정은석 최정신 정현숙 조동규 김예숙
 조순덕 진평호 최미자 최은미 최재욱 이수정 하현일 한선희 한성건 정지혜
 한지원 한훈식 권채영 현우영 홍복선 홍순복

감사헌금

강이레 김경혜 김예찬 김일재 김준호 김태정 김향자 노현승 박병구 김인순
 백원선 이삼남 정용구 이상도 임종수 채일석 황경순 무명2

생일감사헌금

김경혜 오대권

녹색꿈헌금

김반야 김정화 민화평 김미란 정효진 최다운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교회소식 ■

1. 세례입교식 및 성탄 축하행사 : 오늘 오후 1:30 세례입교식 및 성탄 축하행사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 유아세례자 : 김 봄 김 린 (김용규 송 명) 김예울(김지혁 방민지) 노주완 (노신후 이한나) 최다운 (최경준 정효진)
 - 세례입교자 : 김반야
 - 입 교 자 : 김서영 이서현
 2. 성탄절 예배 : 25일(화) 오전 11시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3. 달력 : 2019년 달력을 나누어 드립니다. 로비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4. 사랑의 저금통 : 일전에 교회에서 나누어 드렸던 다문화가정 돕기 저금통을 채우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천임원교육 : 중구용산지방에서 시행하는 2019년 신천임원교육이 오늘 오후 4시부터 정동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비는 25,000원입니다.
 6. 주차봉사 : 내년도 주차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하길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마련된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떡 대접 : 문병욱

다음 주 설교 본문	미정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신진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신진식	곽권희	박명제

	1부 영접위원	안현숙	헌금위원	곽권희
12월	2부 영접위원	박홍재 이민범	최승주 박상규	서정순 정재기
	2부 헌금위원	장원호 권미숙		

오늘 식당 봉사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정숙 송인선 이혜선 송동준 이재선
다음주식당봉사	진정숙 최운화 정연경 류형민 강경화 홍운선 이용석 최형균
오늘설거지봉사	5여선교회 성탄절설거지봉사 청년부
커피 판매 봉사	3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홍운선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